

## 무용의 내연內延과 외연外延의 개념 탐구

\* 한혜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의 범주
	III. 무용에서 표현과 내용
	1. 무용의 외적 수용성과 상징
	2. 내적 수용성으로의 무용 contents
	IV. 결론
	참고문헌

---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3.11.15

논문심사일 : 2023.11.18

게재확정일 : 2023.12.18

## A study on the concept of internality and externality of dance

Han, Hea-ree · Kyungsoong University

---

What is dance? In the method of contemporary study on ‘What is called dance?’,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on the concept of externality and internality of dance” under the premise of contextualizing and recomposing the meanings of dance in the background of age spirit in which crossing over the academic boundaries becomes so natural.

The content of this study, which presents that the changed appearance is the expansion of dance externality and the will to decide the appearance of dance that establishes the world of imagination composed of understanding and expectation is the internality of dance,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ssential element of dance is a thinking body, and dance gets its own meanings in the function to expand spirit.

Dance expands the perceptual function in the structure of attention, concentration, and consideration when participating in the place of exchange where others’ identities coexist through the body that thinks and expresses individual identity.

The inner inevitability of communication which is a complex of reality check and psychology of expectation builds the world of imagination, which is expressed into the appearance of dance.

Reality check is a critical viewpoint on society while the psychology of expectation is ethical consciousness the mankind commonly aims for, which is spread through the educational system. In this case, dance of the self-reflection structure is about improving perceptual intelligence.

<key words> internality and externality of dance, perceptual intelligence, thinking body, imagination, apparence, dance of the self-reflection structure

<주요어> 무용의 외연과 내연, 지각지능, 생각하는 몸, 상상, 외양, 자아성찰의 무용 구조

무용 연구가 개별 작품의 가치나 양식적 분류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의 범위를 넘어, 무용의 의미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연결된 사회제도에서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초 학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구조주의 이론과 현상학이 각각의 학문 영역에서 신화와 예술을 mythos의 언어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범용화 된 시기부터일 것이다.

은유와 상징이 핵심인 예술의 참신성은 상징이 외양(apparence)인 무용에서 확장된 외연에 의해 생성되는 무용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는 무용을 식별하고, 각각의 외연이 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무용 contents의 강도로 무용의 외양을 지각하는 방식의 “무용의 내연과 외연의 개념 탐구”는 달라진 외양의 무용을 포함하는 동시대 무용의 개념 제시에 목적이 있다.

무용은 목적에 따라 의식 무용, 사교 무용, concert dance, 사회제도에서 혜택으로 주어지는 community dance 등으로 관련 영역을 확장하고, 실내·외 극장이나 특별 설치 무대 등의 실제 공간에서의 공연 뿐 아니라 각종 기기器機에서 on-line 영상으로 송출하는 수 많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무용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무용의 외양은 소통 미디어에서의 실현 방식에 따라 참신성 혹은 새로움 또는 독창성이나 개별성의 강도와 표현 구조가 다르다. 무용 외연의 확장은 무용이 복합적 영역 - 예술, 일상, 사회, 경제 정치 등 -에서 그리고 미디어와의 관계 맺기 방식으로 발생하는 가치나 기능을 말한다. 무용의 개념 연구가 의미나 기능 제시 그리고 본질 탐색의 두 방향이라면 본질 탐색의 연구 방법은 기능과 의미 연구보다 역사가 길다. 따라서 무용의 본질 연구가 연구 대상인 무용을 특정 양식 즉 역사적 무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무용의 외적 수용성 확대로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 맺기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와 기능에 의한 새로운 외양의 무용을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외연의 확장으로 표현되는 무용의 새로운 외양은 이전 무용의 필요 구성 요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무용의 본질 연구 방식에서 연역이나 귀납의 논리가 기반이었다면 무용이 소통의 도구로 선택하는 것 혹은 관계의 영역들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기능과 의미에 따른 다양한 외양의 무용은 가추(abduction)<sup>1)</sup>의 논리로 이해가 가능하다.

무용의 관계 맺기가 생성하는 무용의 새로운 기능과 의미는 곧 무용의 새로운

외양으로 표현되며 새로운 형식에 존재하는 무용은, 곧 확장된 외연으로 생성된 참신한 무용이다. 이렇게 다양한 외양의 새로운 무용들은 어떤 구조에서 실현되는가에 따라 기능과 가치가 달라지는데 직접적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감지되지 않으며 수치화 할 수 없는 무용의 기능과 가치는 내적 수용성 즉 강도로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의 주체이자 대상인 몸을 사유하고 행동하는 몸, 즉 개인의 정체성으로 해석하고, 사유의 몸과 실천 혹은 표현하는 몸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행위를 무용의 외연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통 행위의 내적 동기 혹은 내적 필연성을 무용의 내적 수용성인 콘텐츠로 분류하여 외연의 확장으로 참신성을 지니는 동시대 무용의 개념 탐구를 진행하였다.

## II / 무용의 범주

무용은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소통 방법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는 예술의 영역에서 보편성과 특별성의 구분 기준으로 장르의 독립성을 구축하였다. 예술의 독립된 장르로서 무용의 이해가 공연 현장의 증인으로서 관객의 개인적 이해와 해석을 넘어, 무용 양식적 기준의 평가 구조에서 옳고, 그림 그리고 좋고 나쁨의 판단으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인의 세계와의 무목적<sup>2)</sup>적인 교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개별적 사유의 과정은 규칙과 기준의 적용으로 대체되었다. 즉 사유를 통한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무용 양식이 자체 규칙을 구축하면서 이해와 해석의 대상인 실제 세계를 재현하는 ‘그럴싸한’ 것이 되었다. 내가 구축하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구축된 가상의 세계를 실제 세계와 견주어 얼마나 닮아있는지 또는 얼마나 동떨어진 세계인지를 평가하게 될 때 무용은 이해의 대상이된다. 무용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사유가 만든 상상의 세계로, 철학이 구축하려는 개념어와 같다. 상징으로서의 무용이 실제 세계의 재현이기 보다 상상 세계의 구축이라는 것에 대하여 Klee, P.(1920)는 “예

1) “연역은 어떤 것이 그래야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귀납은 어떤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반해, 가추는 어떤 것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할 따름이다”(Peierce, C. S., 1960:5,171, 유현식, 2016:33 재인용).

2) 자신의 이해관계를 결부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자세

술은 명백한 것을 재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백하게 해준다”<sup>3)</sup>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클레는 예술이 재현이기 보다 표현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예술관을 표현한 것이었다. 재현으로서의 무용이 아닌 표현으로서의 무용이 예술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면 사유로 구축되는 상상의 세계는 춤과 무용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며 이 때 사유는 상징물인 무용의 강도로 표현된다. 이와는 다른 구조에서 발견되는 경쟁구조에서의 무용은 해석과 판단 그리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무용으로, 역사적 무용양식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무용수 움직임의 테크닉 혹은 총체예술(음악, 미술, 의상, 조명, 영상 등이 동반됨)로서 무용의 완성도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의 무용은 문화산업과 대량생산이라는 산업영역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즉 무용소통 미디어로서의 대형무대 - 올림픽이나 엑스포와 같은 범세계적 축제, 월드컵, 아시안 게임, 유로 매치 등의 메가스포츠 행사 등 -, film, 사진, 동영상 등에서 무용이 제작되고, 다양한 매체에 저장되어 복합적 경로로 유통되고 소비된다. 무용의 양식적 특성이 부각되고, 또한 움직임 테크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대 구성 및 구도의 안무 기술과 무대 메커니즘 및 단체의 장기적 공연을 위한 운영행정 및 공연 기획 체계 그리고 무용수들의 교육 및 고용 체제가 매뉴얼화 되어 사회 전반의 영역에 적용 되어 계승되고 변용되어 문화 관련 산업의 기술 지식으로 무용의 역사에 합류를 대기하고 있다.

파편화된 무용의 조각들의 맥락을 찾아 그 기원과 지금의 외양 그리고 무용이 인간의 삶에 어떤 접근성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시대의 요청을 연결하는 것이, 날마다 혹은 매시간 어떤 곳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외양의 무용을 탐구하고 개념을 정립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무용이 외양적으로 균제미와 인공미를 추구하던 시기는 예술 양식사에서 고전주의, ballet classique의 시대이다. 무용에서 외양적 전통이 구축된 19세기는 낭만주의 무용 혹은 ballet blanc이라고 구분하는 무용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용의 전통미를 외양 기준의 균제미와 인공미로 제한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를 내용으로 무용의 외양이 상징 이미지로 구축된 modernism 시대의 새로운 무용의 발생과 차별화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인공미 추구로 표현되는 무용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외적인 것이었던 반면, 무의식의 표출인 인간 본성을 이미지로 제시하는 모더니즘시대의 무용은 무의식의 세계를 무용으로 상징화하는 내연적 필연성은, 무용의 고전적 외양의 인공미와 비견되는 숭고미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숭고미는 강도로 무용을 지각한다. Kandinsky, W.(1912)가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서술한 ‘내적 필연성’이 예술이 제현에서 표현 즉, 상징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요인이 된다. 무용 양식

<sup>3)</sup> Klee, P.(1920), “Creative confession” <https://books.google.com>

사는 이 때의 무용을 표현주의 무용, 원시주의 무용 또는 모던댄스로 분류하고 있다.

모더니즘 시대 무용 이후의 무용인 post-modern dance는 모더니즘 무용이 추구했던 내연의 의미 강도 앞에 media를 세웠다. 즉, 포스트모던댄스는 상징체인 무용을 사회와의 소통 미디어로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 산업사회가 동반한 무질서와 불합리함에서 비롯된 인간에 내재하는 불안감과 과도한 긴장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엘리트의 의무와 책임감이 내포된 모더니즘 무용과는 달리 포스트모던댄스는 경험의 기회 부여에 차별 대신 차이를 부각시키고 그 뒤에 평등한 관계 형성의 주제로 무용을 만들어 나갔고 외양적으로는 다양한 시도- 축소된 무용, 반 무용, 비 무용 등으로 해석된- 들로 이해되었다.

개인 정체성이 내장된 몸으로 보여주는 자신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이며 무용으로 만나는 또 다른 정체성의 몸이 표현하는 타인들의 세계들은 나의 가능 세계로, 무용으로의 소통은 다르고 낯선 세계 즉 타인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차별과 소외를 차이와 배려 그리고 관용으로 변모하는 구조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정체성으로서의 개별적인 몸이 만드는 이미지로 구축되는 상상의 세계는 어떠한 상징구조에 놓이든지 따라 외양이 달라지며 포스트모던댄스의 시대와 동시대 무용의 차이는 무용으로의 만남이 무용으로의 소통으로 이행되고, 무용소통은 시대의 가치관이자 윤리관인 수평적 연결, 대칭적 관계, 비경쟁적 구조가 전제조건이다.

다양해진 무용의 외양은 복잡한 관계망에서 각각의 기능으로 접근성을 가진다. 시간단위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구조를 달리 구축하면서 시대와 함께 무용의 외양은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다.

멈춘 적 없는 세계의 변화에서 무용도 외양을 달리하고 있지만, 무용이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은 몸에 내장된 자신의 정체성 혹은 시대적 인간성의 표현이었고, 그 표현에는 타인과의 소통이 전제되어 있었다. 소통이 즉, 자신의 표현이 무용의 목적인 이유는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만이 인간의 정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용의 필수 요소는 사유하는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소통하는 무용은 정신의 확장 기능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 III 무용에서 표현과 내용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하건, 걷기처럼 구체적이든 철학적 성찰처럼 추상적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의 온몸이 함께 얽혀있다. 모든 행위는 우리의 구조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다 공존의 무용 각본에 따른 구조적 춤이다(Maturana, Humberto R., Varela, Francisco, J., 1984, 역, 최호영 2007:278).

우리의 모든 행동이 상호작용의 구조에서 그 기능과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위가 무용이 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의 과제 중 하나로, 지각 또는 사유와 행위를 분리하지 않는 정체성으로의 사유하는 몸이 관계 맺는 구조에 따라 그 의미나 기능을 생성하는 체계에서는, 개별적 사유들이 만들어내는 타인들의 세계를 가능한 세계로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 상상으로, 상상력은 서로 다른 정체성들의 상호작용에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기만인 것처럼, 타인의 세계와의 공존에서 상상력은 관심, 관찰 -혹은 집중, 몰입-을 통한 지각이 배려와 관용 즉, 대칭적 관계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상상력은 실제와는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면서 발현되는데, 상상세계는 한 번도 그랬던 적 없는 바깥으로의 정체성 즉 사유가 확장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1. 무용의 외적 수용성과 상징

개인적 사유가 구축하는 각각의 다른 상상의 세계는 서로의 관계 맺기에 의해 의미가 생성된다.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무용은 정체성의 표현체인 개별적 몸이 하는 행위가 상징의 구조에서 그 의미와 기능을 생성한다.

무용은 외적 수용의 확장으로 그 외양이 새롭게 구축되어 다양한 체험 구조에서는 물론, 기계화된 표현 미디어의 contents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개별적 몸이 정체성의 외양이라면 그 외양을 형성하는 기본 요인은 사유<sup>4)</sup>하는 인간의 지각 능력이다. Wachler, B.(2017, 최호영 역, 2019 :32)의 개념에 따르면 지각 능력(perceptual intelligence, PI)은 환상과 실재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때로는 조작하는 방식이다. 즉 “사람마다 사물과 현상을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도 개인의 PI에 따라 매우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38). 감각이 객관적일 수 없는 반면, 개

<sup>4)</sup> 철학 영역에서의 개념으로는 ‘사유는 번역’이라고 정의 하는 Rancière, J.(1987:20), ‘사유란 우리의 기억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서로를 관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Augustine, S.(2009:298) 등의 개념(박기순, 2016 :172, 176 재인용)을 제시할 수 있다.

별성은 감각이 하는 착각 혹은 타인과의 ‘차이나 다름’의 근원이다. 즉,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감각은 실재 세계에 대한 증인과 증거의 역할을 하고 그 감각을 서술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그러한 상상력이 낮은 무용의 기능을 시대적, 지역적으로 분류한 것이 무용양식이고, 감각과 사유의 결과물인 무용이 양식으로 분류되면, 무용은 시대적 가치관이 포함된 미관을 근거로 해석되고 평가하는 지식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무용인데, 이때의 익숙함에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예측으로서의 전통적 규범이 내포되어 있다. 무용에 대한 익숙함은 무용을 양식적으로 분류하고 식별하는 무용 지식이 전제된 것이므로, 당시의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등의 감각 경험이 만들어 낸 최종 산물로 무용을 본다면 한 영역에서 익숙한 것이 다른 영역에는 낯선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통이나 전 시대의 유산으로 분류되는 무용이 파편화 되어 다양한 상상 세계의 구성 요소가 되고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할 때, 각기 다른 기능과 의미로 생성되는 외양의 무용을 발견하게 된다. 무용의 새로운 외양은 지각지능(PI)이 확장되는 구조에서 생성된다.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체성으로 구축하는 자아성찰 구조에서의 무용은, 상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무용의 기능 사례 중 하나이다.

동시대 무용은 학문의 영역, 지식의 위계질서, 집단의 문화 특성 등을 내포한 지각하는 몸을 개인 정체성의 표현으로 본다. 그러므로 몸이 곧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따라서 그러한 몸이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이든 개별적이고 또 상징적이다. 이러한 상징으로서의 행위는 개인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구축하는 상상의 세계로, 개인 정체성의 표현의 구조에서 발견되는 무용이다.

공공적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지만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개인이 사회나 집단, 즉 타인과의 다름(차이)을 소외나 격리(차별)로 지각할 때이다. 개별성이 도드라져 차이와 다름으로 지각하게 될 때, 독립적 개인은 사회나 집단의 공감과 위로를 기대한다. 정체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유일한 요소라는 것에는 서로의 다름이 전제되어 있다. 인간의 서로 다름의 전제 조건은 동시대 인간 본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가치론적 본질이다. 따라서 개인 없는 집단이 성립되지 못하고, 개별성을 무시한 보편성이 있을 수 없듯이, 공감은 다른 것을 이해하려는 의지적 행위로, 위로는 배려와 관용이 이타심을 대체하게 되었다. 무용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관용의 행위 구조에서 외양이 구축되는 구조의 예시로 들수 있는 것이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는 개인 정체성의 표현체인 사유하고 표현하는 몸으로 타인과의 교류의 장場에 참여할 때이다. 정체성은 우리가 생리적, 물리적, 문화적, 본성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의지가 사회적 실천에서 무용의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 행위로 표현되는 정체성은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라기보다는 만남 혹은 부딪힘의 구조에서 작동한다. Mead, G.(1934, 이재혁, 2016: 357 재인용)는 구조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마음을 현재 진행형(on-going)으로 표현하였고, Marx, K.(1976)도 “인간은 어떤 닫힌 단자(monad)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357)이라는 서술로 인간의 현재 보여지는 모습에 국한된 이해나 해석을 지양했다. 즉 정체성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와 지금 그리고 미래의 기대하는 모습이 포함된 언제나 생성 중인 자신의 모습이다.

둘째로는 사유체로서의 개인들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공존의 장에 참여할 때이다. 몸에는 역사적 그리고 경험적 흔적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꺼내어 보지 않으면 즉 사유하지 않으면 몸의 기록을 읽을 수 없고 따라서 몸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없다. 몸이 어떤 연관 구조에서 정체성 즉, 자신을 무용 행위로 나타낼 때 비로소 침묵하던 사유가 타인과의 소통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박기순(2016: 192)은 “비-사유로서의 사유, 즉 사유하지 않는 사유의 언어는 ‘침묵하는 문자(écriture muette)’이다. 근대의 새로운 시인은 침묵하는 사물의 문자를 듣는 자이다”로 서술하였다. 결국, 몸에 잠재하고 있는 사유를 꺼내고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구조에서 무용의 외양이 생성된다. 사유의 새로운 개념은 생각과 행동을 동체로 인식하고, 다르고 낯선 것을 분류하여 차별화 하는 대신 차이로 받아들이는 이해의 능력이다.

기존의 무용 양식에 존재하는 무용들은 자발적 참여나 증인으로서의 관찰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구조로 각각의 매체들에 파편화 되어 존재한다. 그것이 무용일까?라는 새로운 무용 개념은 새로운 용어 혹은 타 학문의 용어를 차용하여 서술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마주한 낯선 것의 맥락을 찾고 지금 이곳의 무용을 직시하고 무용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근거로 새롭고 낯선 무용을 지각하는 능력으로 그 대답을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내적 수용성으로의 무용 contents

무용이 발견되는 다양한 구조와 매체에서 무용의 달라진 외양을 발견하게도 되는 데, 사회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와 복지 제도에서의 자아 인식과 자아 존중감 구축을 위한 무용 체험과 인류시민교육에서 무용이 복지나 교육 분야의 제도에서 혜택으로 체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전의 인본교육, 교양교육, 인문학 교육, 시민교육, 예술교육 등이 교육기관을 통해 실행하게 된 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치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확산하는데 교육이 가장 공식적이고 빠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고, 무용은 이러한 교육 구조의 contents 중 하나였다. 교육의 영역에

서 과학적 지식이 우위를 차지했을 때 무용은 지식교육의 구조에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였고, 과학기술이 범용화를 동반했던 시기에 사회가 교육에 요청한 것은 전문화된 지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전문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병행이었다. 이 때 무용의 새로운 외양은 과거 무용과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생산성 혹은 확산력을 기반으로 재구성되는 무용이 발생하였다. 생산된 무용은 영향력 확대에 적합한 소통 미디어를 선택하여 의외의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외양이 달라진 무용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무용의 참신성이 곧 새로운 무용의 기본 요소라면, 동시대 새로운 외양의 무용은 개인의 독자적 사유로 인해 상상의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인 반면, 생산성에 근거를 둔 새로운 외양의 무용은 이미 일어난 사건(event)으로 사건이 존재하는 방식은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구축되는 상상의 세계라기보다 새로운 세계의 현현이다. Barbaras, R.(2016 : 424)는 “새로움 자체의 현현(appearing) (.....) 이러한 새로움은 새로운 것의 술어도 아니고 창조적 과정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우리의 세계를 변용하는(affect)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과정으로서의 탄생이 근본적인 새로움이라고 주장하는 Barbaras의 용어를 참신함으로 대체하면, 이미 일어난 사건, 즉 사유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쟁 구조에서의 무용은 해석과 평가만을 기다린다. 상징과 은유를 상실한 무용은 사유의 활동을 저해하고 지식으로 이미지를 해독한다. 『Understanding media』(1964)의 1장의 제목을 ‘미디어는 메시지다’로 작성한 McLuhan(1964)은 fidelity(밀도)를 기준으로 감각의 확장을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hot media와 cool media를 구분하고 라디오와 영화 그리고 전화와 TV를 예시로 들었다. 인터넷이 미디어 문화를 바꾸기 전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였던 맥루한은 감각의 확장으로 미디어를 분류하였다. 문학의 영역에서 로고스의 언어와 뒤토스의 언어를 분류할 때, 언어를 다양한 소통 방법 중 하나로 분류한 것처럼 미디어와 미디어의 선택을 통합하여 하나로 본 ‘미디어는 메시지다’는 구조에서 사물이 의미를 생성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무용의 본질이 상징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각 능력의 확장은 무용과 무용의 상징 기능을 상실한 생산 무용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경직되고 정형화 된 무용은 의미 발견의 과정이 필요치 않다. 기준과 형식에 일치하는 정도를 찾아내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서의 무용 행위는 무용의 외양을 결정하는 근간이고 내적 필연성이라고 불리는 강도(intensité)는 외연과의 상관관계(corrélation)<sup>5)</sup>에서 의미를 생성한다. 따라서 강도 즉 무용의 내

5) (강도와 외연의) 상관관계(corrélation)라고 함은 상호 규정적임을 말하는데, 강도의 변화에 외연의 변화가, 외연의 변화에 강도의 변화가 잇따름을 뜻한다“(최용호, 2016: 207).

연은 외연의 형성과정에 관계한다. 무용은 지각을 통해 경험하는 내용을 몸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상력이 구축하는 이미지가 무용의 외양이 된다. 이렇게 외양을 구축하는 상상력은 외부에 실재하는 자극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내적 필연성’이라는 Kandinsky, W.(1912)용어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칸딘스키가 ‘내적 필연성의 원칙’으로 제시한 내적 필연성의 근원적 요소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개성적 요소를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대는 이러한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로 한정 지칭되었다는 시대성을 감안해야하는 해석의 제약성을 받아들이면, 지식 용어로서의 사고와는 달리 개별적 사유가 구축하는 상상의 세계는 시대에 대한 비판 정신에 근간을 두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대적 필요성 때문이다.

개인적 사유는 낯선 것을 대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신 활동으로 상상력을 매개로 외양을 구축한다. 따라서 상상력이 이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개인 정체성이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세계인 반면, 사고는 이미 구축된 세계를 해석하는데 적합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고는 오랜 시간 쌓인 여러 가지의 지각과 판단 경험 그리고 편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순응적 특성으로 인해 고정된 지식에 자발적으로 세뇌 되어 환상과 실재 그리고 정상과 일탈에 대한 구분 능력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상상과 은유로 존재하는 상징으로서의 무용은 지각지능 향상의 기능으로 자기 성찰 구조의 무용 콘텐츠를 구성한다. Wachler, Brian, B.(2017, 최호영 역, 2019:287)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각지능 향상 시키는 유용한 요소가 직관, 비판적 사고력, 개인적 사고방식과 감정에 주의 기울이기 등의 네 가지인데, 이 네 요소는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필요 요소이기도 하다.

## IV 결론

무용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무용이라 하는가?에 대한 연구 방법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무용의 의미를 맥락화하고 그것을 재 구성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무용의 외연과 내연의 개념 탐구”를 진행하였다.

새로움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의 관점이다. 현재 우리 삶 옆에 놓인 무용이 누구에게는 전통이자 문화유산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개인적 발전과 심신의 안정과 평온을 위한 수단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용 지식은 공공 제도나 의도적 학습에 의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것에 지역별 문화 환경에 문화유전자(Dokins, R. 의 용어로 meme)등이 보태어진 것이다. 아직 무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낯선 행위를 그 기능과 의미를 단초로 무용의 맥락에서 개념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형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무용의 외양은 외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원형을 찾을 수 없는 상징체로서의 무용의 외연 확장은 사회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교육 제도 그리고 불안한 심리 구조를 기반으로 의료를 포함한 복지제도에서의 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한 사회 제도에서의 무용이 수치나 물리적 결과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기능과 의미를 수행하는 것을 무용의 외양을 결정하는 요구와 기대의 강도로 보고 그것을 무용의 내연성으로 지칭하였다. 무용의 내연성은 내적 필연성에 의해 무용의 외양을 구축한다. 따라서 제도를 선택하고 구조를 변형하는 자율적 방식의 무용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시대적으로 변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려는 의지로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pathos에서 ethos로 그리고 시민 의식에서 인류시민교육으로 그 용어를 바꾸면서 공유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전제하여야 하는 차별과 차이, 공감과 배려, 평등과 공평, 관용과 공존의 의미를 기준으로 무용 내연의 강도를 설명하였다. 달라진 외양을 무용 외연의 확장으로 그리고 이해와 기대의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무용의 외양을 결정하는 의지를 무용의 내연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무용의 필수 요소는 사유하는 몸이라 할 수 있으며 무용은 정신의 확장 기능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무용은 개인 정체성의 표현체인 사유하고 표현하는 몸으로 타인들의 정체성과 공존하는 교류의 장場에 참여할 때 관심과 집중 그리고 배려의 구조로 지각 지능을 확장한다.

현실 직시와 기대 심리의 복합체인 소통의 내적 필연성이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고 무용 외양으로 표현된다.

현실직시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며 기대 심리는 인류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윤리의식으로 교육 제도를 통해 확산하는데 그때 자아 성찰 구조의 무용은 지각 지능 향상을 내용으로 한다.

- 박기순(2016), “인게니움(ingenium) 개념과 사유에 대한 새로운 사유”, **동서의 문화와 창조 171-196**, 서울 : 이학사.
- 유현식(2016), “새로운 것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조건”, **동서의 문화와 창조 25-57**, 서울 : 이학사.
- 이재혁(2016), “사회학을 통해 본 분류와 창발의 문제”, **동서의 문화와 창조 318-362**, 서울 : 이학사.
- 최용호(2016), “서사적 사유와 과학적 사유 그리고 세계”, **동서의 문화와 창조 197-222**, 서울 : 이학사.
- Augustine, S. Cadwick, H. (trans, 2009), *Confession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arbaras, R., 황수영(역, 2016),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동서의 문화와 창조 409-426**, 서울 : 이학사.
- MacLuhan, M.(1964), *Understanding media*, 김성기, 이한우(역, 2002), **미디어의 이해**, 서울 : 민음사.
- Maturana, Humberto R., Varela, Francisco, J.(1984), *Der baum der erkenntnis*, 최호영(역, 2007), **삶의 나무**, 서울 : 갈무리.
- Marx, K.(1976), “Theses on feuerbach”, *German ideology*, Moscow : Progress publisher.
- Mead, Herbert G.(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Kandinsky, W.(1912),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권영필(역, 2019),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 열화당.
- Peierce, C. S.(1960), *Collected paper*, Cambridge Massachusetts.
- Rancière J.(1987), *Le maître ignorant: Cinque leçon sur l’émancipation intellectuelle*, Paris: Fayard.
- Wachler, Brian B.(2017), *Perceptual intelligence*, 최호영(역, 2019), **지각지능**, 서울 : 소소의 책.
- Klee, P.(1920), “Creative confession” <https://books.google.com>